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0.(수) 17:00
(지면) 2026. 6. 11.(목) 조간

화물열차 탈선으로 유류 누출·폭발 사고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실시

- 열차 탈선이 위험물 폭발로 이어지는 복합재난 상황에서 정부 대응 역량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0일(수), 2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나 도시 기반 시설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발생하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화물열차 탈선으로 인해 수송 중이던 항공유가 폭발하면서 대규모 사상자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훈련 장소를 매월 1,250만여 리터의 항공유가 통과하는 부강역 인근으로 설정해 철도, 위험물, 환경 분야의 통합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철도에 토사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항공유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시작됐다. 탈선으로 인한 충격으로 항공유 135톤이 선로와 배수로를 따라 누출됐다. 사고 직후, 기관사 신고로 119와 관계기관에 상황이 전파됐고, 한국철도공사 초기대응팀과 소방·경찰 선착대가 도착해 현장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한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사고 장소로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세종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하며 초기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 누출된 유류 증기가 폭발하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소방은 대응 단계를 상향해 화재진압과 폭발 확산 방지를, 경찰은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종보건소는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환자 분류와 병원 이송을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류 확산 차단과 함께 폭발 위험반경과 환경오염 분석을 실시했다.

정부의 총력 대응을 통해 사고 수습 및 복구 단계 들어섰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며, 대형 기중기·굴착기 등 장비를 총동원해 선로 복구를 준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시와 협력해 주변 오염물 회수와 토양·수질 복원 등 환경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단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이 참여해 사고 수습을 위해 힘을 보탰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양상이 복잡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얽혀 있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	책임자	과장	임충현 (044-205-5291)
		담당자	사무관	김형기 (044-205-5298)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	책임자	과장	조정원 (044-205-6330)
		담당자	사무관	권순모 (044-205-6343)